‘TV는 사랑을 싣고’…드라마부터 예능까지 로맨스 주의보

기름진 멜로 · 리치맨 · 하트시그널2 등
시청자, 콘텐츠 통해 대리 만족 요구 반영

드라마부터 예능 프로그램까지 로맨스 열풍이 다시금 불고 있다. 한동안 장르물이 대세로 자리매김했지만 다시 달콤한 로맨스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시청자를 찾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이준호, 장혁, 정려원 주연의 SBS ‘기름진 멜로’는 세 남녀의 진한 연애담을 담은 이른바 ‘로코믹 주방 활극’을 표방하고 있다. 유쾌한 삼각 로맨스와 요리가 만나 신선한 로맨틱 코미디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김준면(엑소 수호)과 하연수 주연의 드라맥스, MBN ‘리치맨’ 역시 안면인식장애로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천재 사업가와 알파고 급 기억력을 가진 취준생의 티격태격 로맨스를 그리며 안방극장에 새로운 설렘 주의보를 전하고 있다.

방송 중인 드라마 외에도 오는 23일 첫 방송을 앞둔 황정음, 남궁민의 SBS ‘훈남정음’과 오는 6월 첫 방송 예정인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역시 로맨틱 코미디 장르다. 특히 전작의 성공을 통해 ‘로코퀸’ 반열에 오른 황정음과 MBC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KBS2드라마 ‘쌈, 마이웨이’ 등으로 역시 로맨틱 장르에서 인기를 얻은 박서준이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장르를 맡아 각자 펼칠 활약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tvN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타임’(이하 어바웃타임) 또한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 중 하나다. 이성경과 이상윤이 출연하는 ‘어바웃타임’은 수명시계를 보는 능력을 지닌 여자와 운명에 엮인 남자가 만나 사랑만이 구현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순간을 담아낸 로맨스로 ‘오 나의 귀신님’, ‘도깨비’ 등 tvN 판타지 로맨스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제작 관계자는 “법정이나 의학 등 소재를 다룬 장르물의 인기도 많았지만 다시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장르에 대한 선호도 높아졌다. 복잡한 현실을 넘어 드라마나 TV 콘텐츠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청자의 요구가 반영되며 다양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감 요소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허황된 로맨스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 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로맨스의 바람은 불고 있다. 청춘 남녀의 예측 불가 로맨스가 그려지며 ‘제2의 짝’이라는 수식어로 인기를 얻고 있는 채널A의 ‘하트시그널2’가 로맨스 예능의 선두 주자다.

‘하트시그널2’의 출연자들은 스타들을 꺾고 화제성 출연자 1위에 오르는 등 높은 체감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리얼한 이야기와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마음의 향방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는 평이다.

SBS ‘로맨스 패키지’ 역시 설 특집 파일럿 이후 호평을 받으며 정규 편성에 안착했다.

‘로맨스 패키지’는 3박 4일 간의 주말 연애 패키지를 콘셉트로 2030 세대에게 인기 있는 트렌드 중 하나인 ‘호캉스(호텔+바캉스)’와 연애를 접목시킨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로맨스 패키지’도 빠른 전개와 다음 회가 궁금해지는 전개로 많은 화제가 되며 ‘하트시그널’을 잇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능 관계자는 “예능에서도 ‘짝’ 이후 다소 주춤했던 로맨스 장르가 다시 선호되고 있다. 여전히 일반인 출연자 논란이나 관련 의혹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만 예능에서 볼 수 없던 캐릭터들의 등장과 예측할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 전개와 연애의 만남은 분명 매력적인 소재다”고 전했다.

‘독전’, 그림자를 쫓다 그림자가 된 슬픈 느와르

그림자를 쫓는 남자. 그림자를 쫓다 그림자가 돼버린 남자. 독한 자들의 전쟁을 표방했지만 ‘독전’은 슬픈 그림자의 이야기다.

형사 원호(조진웅). 오래 동안 마약 조직 이선생 일파를 쫓았다. 늘 실패했다. 조직의 숨은 보스인 이선생이 나이가 몇인지, 이름이 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차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생의 후견인이던 오연옥(김성령)이 원호를 찾는다. 오연옥은 마약공장이 폭파되면서 자신조차 제거되리란 위협을 느껴 제발로 원호를 찾았다. 오연옥은 원호에게 “이선생은 악마야”라고 말한다.

폭파된 마약공장에서 살아남은 건, 마약조직원 락(류준열)과 피투성이 개 한 마리. 원호는 락을 설득해 이선생을 잡으려 한다. 마약조직 내 아무도 이선생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나씩 꼬리를 밟아갈 뿐이다. 연결고리는 락 뿐이다.

마침 락은 이선생 조직과 중국 마약 조직의 보스인 진하림(김주혁)을 연결하는 연결책이다. 진하림 얼굴을 아는 사람도 락 뿐. 원호는 자신의 이선생 일파 중간보스인 선창(박해준) 인양 진하림을 만난다. 선창 앞에선 자신이 진하림인양 행세한다.

염전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마약공장. 그곳에서 마약 만드는 말 못하는 남매와 소통할 수 있는 건 락 뿐. 원호는 그곳에 덫을 놓고 기다린다. 리스트에 없는 조직의 실력자 브라이언(차승원)이 찾아온다. 진짜 꼬리 밟기가 시작됐다.

꼬리밟기다. 하나씩 하나씩 밟는다. 마지막까지. 이해영 감독은 ‘독전’을 그렇게 만들었다. 함정을 파고, 하나씩 하나씩 꼬리를 밟는 과정을 담았다. 일상은 없다. 빠르다. 희망도 없다. 피와 복수, 허무뿐이다. ‘천하장사 마돈나’ ‘페스티발’ ‘경성학교’의 이해영 감독은 없다. 이해영 감독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건, 허무뿐이다. 점점 따뜻함이 사라지고 허무가 드리기 시작했던 그의 영화는 ‘독전’으로 허무의 세계로 완연히 들어갔다.

‘독전’은 악을 쫓다 악이 된, 어둠을 보다가 어둠이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쫓는 사람의 모험을, 잡을 수 없는 그림자를 쫓는 사람의 고행으로 옮겼다. 그 고행은 잔혹하고, 광기가 서리지만 짙은 허무가 뱄다.

강한 원색이다.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색을 입혔다. 각각의 색이 각각의 인물이다. 회색은 없다. ‘독전’의 색이다. 쉬어가는 틈은 없다. 강한 색이 쉬지 않고 휘몰아친다. 원작인 홍콩 느와르의 회색과 비장함 대신 짙은 원색과 허무함이 가득하다. 가히 한국 느와르라 할 만하다.

원색을 가득 담은 카메라 앵글은 종종 높고 낮다. 정면은 거리를 둔다. 인물을 낮은 각도에서 쳐다보게 했다. 경외를 담기 마련이어야 할 이 낮은 시선은 ‘독전’에선 신기하리만치 거리를 두게 만든다. 등장인물들을 그림자로 만든다.

원호를 맡은 조진웅은 좋다. 이런 장르에서 주인공 형사가 보여주기 마련인 열혈이나 폭력, 마초 냄새가 적다. 그림자를 쫓는 허무를 그대로 담았다. 락을 맡은 류준열은 매우 좋다. 그의 출연작 중 가장 두드러진다. 표정없는 표정으로 공허를 그렸다.

진하림을 맡은 김주혁은 ‘독전’의 불이다. 얼음같이 차가운 영화에서 피 같은 뜨거움을 더했다. 그의 평생을 담은 필모그라피에서 제일 다른 모습이자 제일 지독한 악역이다. 김주혁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을 모습이다. 스크린에 멈춰버린, 그대로 영원으로 남은 모습이, 현실과 더해 영화에 허무를 더한다.

박해준과 차승원, 그리고 김성령. 배우의 다른 모습을 끌어낸 좋은 예로 남을 것 같다.

‘독전’은 독하다. 마약 흡입에 살인, 노출 등이 여과 없이 소개된다. 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아닌지 의아할 정도다.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라서 보다는 짙은 허무 때문인 것 같다. 따라가다 보면 잔혹함 대신 빙하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원색은 사라지고 흰색만 남는다.

5월22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트와이스 ‘왓 이즈 러브?’ MV 1억뷰 돌파

그룹 트와이스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데뷔곡부터 8연속 1억뷰 돌파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트와이스가 4월 9일 오후 6시 공개한 미니 5집 타이틀곡 ‘왓 이즈 러브?’ MV는 공개 약 36일 6시간 만인 16일 0시께 1억뷰를 넘어섰다. 해당 MV는 공개 후 K팝 걸그룹 사상 최단기간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뷰 돌파 기록을 잇따라 수립하며 8연속 1억뷰 달성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왓 이즈 러브?’는 지난해 ‘시그널(SIGNAL)’에 이어 ‘박진영 X 트와이스’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합이 다시 만나 연속 히트를 기록한 곡으로 공개 후 각종 온라인 음원 실시간, 일간, 주간차트를 석권했고 가온차트 15주차 순위에서도 4관왕을 차지했다. 각종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도 12관왕의 영광을 안으며 8연속 인기 행진을 증명했다.

특히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최근 ‘왓 이즈 러브?’까지 8곡의 모든 활동곡을 빠짐없이 1억뷰 반열에 올리며 백발백중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데뷔곡부터 8연속 1억뷰 돌파’는 K팝 사상 최초 신기록으로 트와이스는 다시 한 번 아시아 원톱 걸그룹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중 ‘TT’ MV는 지난해 12월 22일 한국 여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3억뷰를 달성한 데 이어 1일 3억 5000만뷰를 넘어서며 독보적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우아하게’와 ‘치어업(CHEER UP)’, ‘라이키(Likey)’의 MV도 2억뷰를 돌파하며 여전한 조회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와이스는 대중적 인기와 탄탄한 팬덤을 고루 갖춘 독보적 걸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가온차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2015년 데뷔 이래 발표한 정규앨범 1장, 미니앨범 5장, 리패키지 2장 총 8장의 앨범은 통산 225만 1789장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한편 트와이스는 16일 일본서 싱글 3집 ‘웨이크 미 업(Wake Me Up)’을 발매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선공개된 ‘웨이크 미 업’ 음원은 현지 라인뮤직 톱100차트서 1위에 오르며 현지서 ‘4연속 인기 홈런’의 청신호를 켰다.

또 트와이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투어 ‘트와이스랜드 존 2 : 판타지 파크(TWICELAND ZONE 2 : Fantasy Park)’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사흘간 총 1만 8000석의 티켓을 일찌감치 전석 매진 시킨 트와이스는 한국에 이어 일본 콘서트 ‘TWICE 2ND TOUR ‘TWICELAND ZONE 2 : Fantasy Park’ IN JAPAN’까지 전 공연 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이번 일본 공연은 5월 26일과 27일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 6월 2일과 3일 오사카성 홀에서 4회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1월과 2월 진행한 첫 쇼케이스 투어와 비교해 더욱 규모를 넓혀 1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아레나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무대로 트와이스의 현지 성장세를 실감케 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음력 4월 3일)

▶쥐띠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남에게 베풀라. 하나를 주면 셋, 넷을 얻는다. 어릴 때부터 사귄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믿는 것도 한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3, 7, 11월생 모든 것을 너무 내보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으라.

▶소띠 꽃병의 물을 갈아주는 마음씨로 자신의 사업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구상력이 뛰어난 그대, 실력을 발휘하라. 3, 8, 12월생 금전 문제로 고통스러울 만큼 힘겹다 애정은 멀리하다 훗날 후회할 일 생길 듯.

▶호랑이띠 분수를 지키고 오만하지 말라. 열심히 인내하며 씨를 뿌리면 곧 결실한다. 친지와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가정을 화목으로 이끄는 길이다. 사랑도 꽃피우는 결과를 가져올 듯. ㄱ, ㅅ, ㅂ 성씨 명예가 중요함을 알라.

▶토끼띠 답답한 일들이 목전에 있을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잘못을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반성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전진하는 것이 좋겠다. ㄱ, ㅁ, ㅊ 성씨 자녀에게 좋은 소식 있을 듯.

▶용띠 겉으로는 진실한 것처럼 대해도 속마음은 이기적인 당신임을 알라. 그런 성격을 버려야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3, 7, 11월생은 자신이 만든 복잡한 애정 관계를 청산해야 사업도 대성할 수 있을 듯.

▶뱀띠 재주도 많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니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밀고 나아가라. 인생은 곡예사가 줄을 타는 것처럼 어려울 때, 즐거울 때가 모두 있는 법이다.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

▶말띠 윗사람 충고를 귀담아들으라.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ㅅ, ㅊ, ㅂ 성씨는 서두르지 말라. 4, 6, 8월생은 차분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남쪽이 길하다.

▶양띠 두 갈래 길을 놓고 그만 망설이고 과감히 하나를 택하라.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받겠다. 나들이를 가서 기분도 전환하고, 가정에 활력도 불어넣으라. ㄱ, ㅊ, ㅇ 성씨 인내심이 필요하다.

▶원숭이띠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이고, 또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면 3, 5, 9월생은 주위 사람 조언을 참고하고 처신하라. 여행하는 것은 좋지만, 홀로 가서는 안 된다. 이성 문제로 뜻밖의 변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몸조심하라.

▶닭띠 미혼은 배필이 생길 듯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일이 번창해 매사 순조로울 듯. 겸손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라. 7, 9, 12월생 사랑은 양보에서 온다. 부부는 일심동체인 만큼 화합하는 것이 좋을 듯.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쓸 때다.

▶개띠 매사에 신중히 생각해 처리하라. 특히 북, 남쪽 사람과 인연은 더욱 길하다. 주변 사람과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5, 7, 11월생 애정은 구설이 뒤따르니 행동을 조심하고 가정을 지키라.

▶돼지띠 동기간 우애가 없으니 불화가 생길 듯. 서로 양보하고, 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노부모님이 계신 사람 우환이 염려된다. 쇠, 용, 닭띠가 가족 중에 있으면 서로 언행을 조심하라. 형제간 우애가 손상할까 우려된다.